무엇을 얻기 위해 사시나요?

(사도행전 21:17-26)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돌봄을 통해 먹을 것과 입을 것, 안식처를 얻어야만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공부하고 더 많은 물질과 안정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동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믿는 이유조차 신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동기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성경 역시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는 자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으며, 앞으로는 진정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바울 일행의 예루살렘 방문은 초대 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장면입니다. 바울과 이방인 교회 대표단은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공식적으로 마주합니다. 이 모임은 다민족 이방인 교회의 대표단과 유대인 모교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마주한 최초의 연합 총회 성격을 띤 연석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바울이 이방 땅에서 감당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유대계 성도들의 반발과 오해를 무마하기 위해 예루살렘 지도부가 준비한 목회적 타협안을 제시하며 심의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석회의는 대등한 협의라기보다는 모교회 지도부가 바울 측에 지침을 전달하고 따르도록 압박하는 권위적인 자리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회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깊이 분별해야 할 핵심은 회의의 외형이나 대화의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쪽의 모습을 더 불편해하시는가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1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방 사역을 낱낱이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사역과 보고의 진정한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험난한 선교지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생담, 동족에게서 당한 억울한 모함과 핍박, 가슴 깊이 팬 수많은 상처와 무용담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조금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고에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도움을 베푼 조력자가 아니라 바울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여 친히 일하신 절대적인 주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된 사람은 자아 중심성이 깨어지고 공격성이 사라지며 오직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만을 고백합니다.

반면 2부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달여의 험난한 여정을 뚫고 모교회를 찾아온 이방인 형제들에게 따뜻한 덕담이나 흔한 평화의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직후, 유대인 신자 수만 명의 규모와 세력을 과시하며 은연중에 영적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와 율법의 관습을 버리도록 가르친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사실인 양 전제하며 바울을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 기득권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오만한 자아가 주어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따뜻한 사랑과 말씀이 넘쳐나던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의 대형 교회가 된 이후 교회는 사나워졌고 차갑고 날카롭게 변질되었습니다. 이방 교회들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모교회는 복음의 본질보다 율법과 할례의 열성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으며, 외형적인 교회의 크기와 교세가 결코 참된 영적 생명력을 대변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이 내놓은 해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처세술과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원을 마친 네 사람의 결례 비용을 바울이 대신 부담하고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여 율법 준수자임을 대중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여론과 악소문에 흔들려 인간의 계산법을 택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장로들의 부당한 요구에 순종하여 다음 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신고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던 바울이 왜 이토록 굴욕적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절차를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장로들에게는 그것이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철저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장로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바울은 단호히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교리적 충돌이 아니라 오해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자존심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굽힌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에 자식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져주듯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질 줄 압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있은 지 수년 뒤 야고보는 순교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는 교회와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자존심을 챙기기보다 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생명을 흘려보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 POIEMA JESUS CHURCH